

무형유산의 가치와 의미 되새기다

전주시, 무형유산 보호와 발전에 힘써온 개인·기관·단체에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 시상
올해 국제공모 통해 접수된 36개국 48건에 대한 엄격한 심사 거쳐 단체 2·개인 1 선정

인도의 전통예술을 지키기 위해 힘써온 '콘택트 베이스', 캐나다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지역사 보존에 힘써온 '뉴펀들랜드와 라브라도 유산재단', 무형문화유산 정책 발전에 앞장서온 모로코의 아미드 스킨티 교수가 '제1회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 수상자로 결정됐다.

전주시는 제1회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 수상자 선정을 위해 무형유산연구원과 함께 전 세계에서 활동중인 무형유산 관련 전문가·연구자·단체·기관·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국제공모를 실시한 결과, 공모에 참여한 36개국 48개 팀에 대한 후보자 적격여부 심사와 심사위원회의 심의, 후보자 검증 등을 거쳐 이들 3개 개인·단체를 수상자로 최종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47명의 무형문화재를 보유하고, 국립무형유산원과 아태무형유산센터가 자리 잡아 무형문화유산의 보고로 불리는 전주에 소중히 무형문화유산을 전승·발전시키는데 앞장서온 인물 또는 단체를 찾아 시상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한 시상제도다.

수상자 중 인도의 콘택트 베이스는 전통예술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는

단체로, 지역문화센터를 설립해 가난한 예술가와 마을주민들을 위해 전통생활예술의 산업화, 관광을 연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특히 이 단체는 △동인도 지역의 공예단체와 전통무용가를 위한 역량강화 활동 △전통공예·구전음악 기록화와 전송자 데이터베이스화 등 무형유산 보호를 위해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또한 캐나다 뉴펀들랜드와 라브라도 유산재단의 경우 캐나다 동부 대서양 연안의 뉴펀들랜드 섬과 라브라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 프로그램과 공동체 기반의 워크숍을 통해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실천 활동, 축제를 통한 홍보와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지역의 전통지식·관습을 보호하기 위해 대학교·유네스코·주정부·중앙정부 등과 협업체 지역사와 무형문화유산 수집 및 아카이브 진행 등에 힘쓰고 있다.

마지막 수상자인 아미드 스킨티 모로코 대학 석좌교수는 지난 2002~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협약과 2006년 협약 시행령의 초안 작성에 참여해 무형유산의 보호에 기여한 인물이다. 그는 전문가회의를 통해 무형문화유

산과 교육, 지속가능한 발전 등에 대해 논의하는데 기여했으며, 인류무형문화유산 심사위원을 역임하고 유네스코 정부간위원회의 모로코 대표와 유네스코 퍼실리테이터로 활동했다.

수상자는 오는 27일 전주 한벽문화관에서 열리는 2019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해 직접 전주를 방문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함께 총상금 2만5000달러(단체 1만 달러, 개인 5000달러)가 수여된다.

시상식 당일 오후에는 수상자와 무형유산 전문가,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이 참여해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프론티어십: 대담'이 한벽공원장에서 열리고, 놀이마당에서는 △인도의 전통예술인 파타치트라 △국가무형문화재 선장장 김동식 보유자의 시연·체험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이강주 시음회 △전주미래유산 사진전 등도 진행될 예정이다.

황권주 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수상자들은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발전을 위해 앞장서온 분들로, 이번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을 통해 무형유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순창군 청소년 무지개 국악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하모니 '토굴음악회'

21일 오후 2시부터 발효소스토클에서 개최

순창군의 다문화 및 비다문화 학생들이 함께하는 청소년 무지개 국악 오케스트라가 오는 21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순창 발효소스토클에서 토굴음악회를 갖는다.

공연은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며, 1부에서는 무지개 국악오케스트라의 소개와 함께 김택수 교육장 등 내·외 귀빈들이 모여 단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본격 공연이 펼쳐질 2부 무대에서는 발효소스토클을 방문한 관광객에게 국악 관현악과 국악가요, 민요 등이 한데 어울린 아름다운 국악 하모니를 선사한다.

국악 관현악으로 편곡된 '그 저녁 무렵부터 새벽이 오기까지'를 시작으로 드라마 대장금 삽입곡으로 유명한 '오나라'와 민요 '산도깨비', 관현악의 웅장함과 풍성한 음색을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 등을 연주한다.

여기에 사물놀이와 관현악이 조화롭게 연주되는 사물놀이를 위한 국악관현악 '신도름'도 연주될 계획이다.

무지개 국악오케스트라는 지난 2017년 6월, 도내를 대표하는 '예술·교육·복지·행정기관과 대기업'이 손을 잡고, 평소 전통예술을



순창군의 다문화 및 비다문화 학생들이 함께하는 청소년 무지개 국악 오케스트라가 오는 21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순창 발효소스토클에서 토굴음악회를 갖는다.

접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 창단됐다. 매주 1회 '전통예술교육'과 '국악연주 기회'를 제공해 오케스트라 참여 단원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무지개 국악오케스트라에서 지휘를 맡고 있

는 조재수(전북도립국악원 관현악단 지도위원 역임) 지휘자는 "바쁜 학업 일정에도 불구하고 늦은 밤까지 연습하는 단원들의 열정이 전문연주자 못지않게 크다"며 "관객들도 아이들의 연주 실력에 깜짝 놀랄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순창=이양원 기자

영화 속 인간 삶 조건과 사회 이슈 철학적 성찰

전북대 조흥만 교수, '철학영화제-위로의 인문학' 출간

맛, 음, 색으로 무장한 포스트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의 방식으로서의 '영화'와 세상을 사랑하는 또 하나의 방식으로서의 '철학'이 만나 깊은 울림과 따뜻한 위로를 선사하는 신간이 나왔다.

전북대학교 조흥만 강의전담교수(인문대 철학과)가 펴낸 '철학영화제-위로의 인문학'(전북대 출판문화원)이다. 이 책은 '관객'을 다그쳐 영화를 '보기'가 아닌 '읽기'로 이행하고, 또 '수용자'가 되라고 독려하는 영화 관련 책이다. 현란한 실존의 카오스 속에서 철학이 오늘날 무엇이고 도대체 왜 필요한 건지를 묻는 철학서이기도 하다. 그리고 국제영화제 급영화마다 노정된 인간 삶의 조건과 사회적인 이슈들을 철학적으로 하나하나 성찰하는 '철학으로 영화읽기'다.

이 책은 저자의 세부 전공 분야인 'eros'(사랑)를 키워드로 사랑의 정치성, 비극성 그리고 불사성을 차례로 천착하며 비상한다. 그런 다음 형이상학의 문제인 진짜와 가짜, 자유의지와 운명, 지식론과 회의주의, 변신론과 악의 문제라는 본격 철학을 넘나든다.

이어 국가보안법과 소크라테스의 법철학, 내부고발의 현주소, 국가폭력이라는 정치·사회철학을 주유한 후, 지금 여기에서 인락사와 그 대안, 사형제 존폐 문제를 생명과 인권의 관점에서 되짚어보고 있다.

/장은성 기자



이에 따라 이 책은 영화와 함께 철학의 각 분야를 조망하고 싶은 중고생, 그리고 철학을 전공하지 않은 대학 신입생이어도 각자도생의 생존 투쟁에 유용한 멘토가 되리라고 기대해도 좋을 주목할 만한 책이다.

한편, 저자인 조흥만 교수는 서양고대철학(플라톤) 전공자로서 제2회 한국동서철학회 인문학술상과 제13회 대한철학회 학술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저서로 '사고와 토론'(2015, 공저), '인문고전읽기'(2014, 공저), '철학의 이해'(2015, 공저), 역서로는 '중세철학'(2007), '플라톤과 소크라테스적 대화'(2015, 공역)가 있다.

익산문화재 가을 야행 추진 준비 박차

내달 4일~5일 백제왕궁 일원서 개최

셔틀버스 확대·편의시설 설치 등 보완

익산시는 오는 10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백제왕궁(익산왕궁리 유적) 일원에서 개최되는 익산문화재 야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4월에 추진된 익산문화재 1차 야행은 아름다운 야간 경관과 알찬 프로그램으로 많은 관람객들의 호응을 받았으며 익산시는 당시 문제점으로 지적받았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작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번 2차 야행에는 순환버스 주요노선을 확대 운영하고 공설운동장과 서동공원 등에 거점정류장을 설치, 셔틀버스를 수시로 운행해 주차장 부족에 따른 교통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또한 인기프로그램은 체험 재료를 추가 구입해 많은 관람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동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

무엇보다 행사 추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인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보완과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와 긴밀하게 협조체계를 구축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야행은 가능하면 많은 시민들이 순환버스나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며 "지난 봄 야행에는 벚꽃이 함께 했다면 이번 가을 야행은 결실의 계절답게 풍성하게 익은 과일들과 황금빛 들녘이 배경으로 백제왕궁 풍경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문화재 활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8월을 테마로 공연·체험·전시 등 다양하고 품격 높은 프로그램을 연 2회 운영함으로써 야간에 문화재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